2022/07/07

ESG Wannab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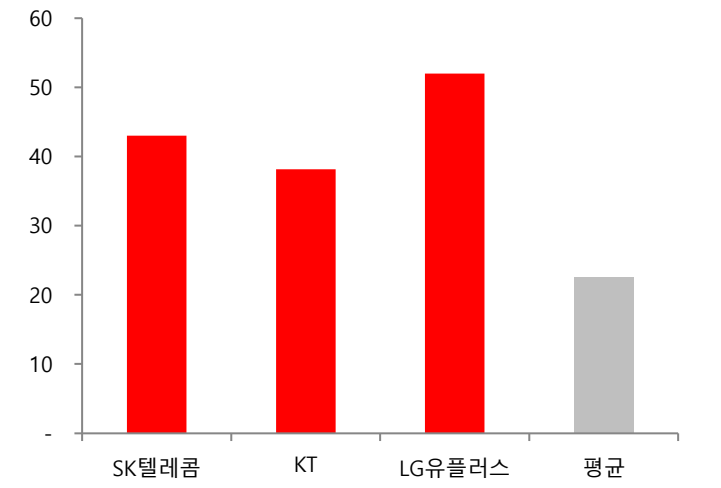
SK증권 기업분석팀
통신서비스/인터넷/지주회사 최관순. 3773-8812

2050년 통신사는 탄소중립으로 간다

● SK텔레콤, KT에 이어 LG유플러스도 탄소중립 선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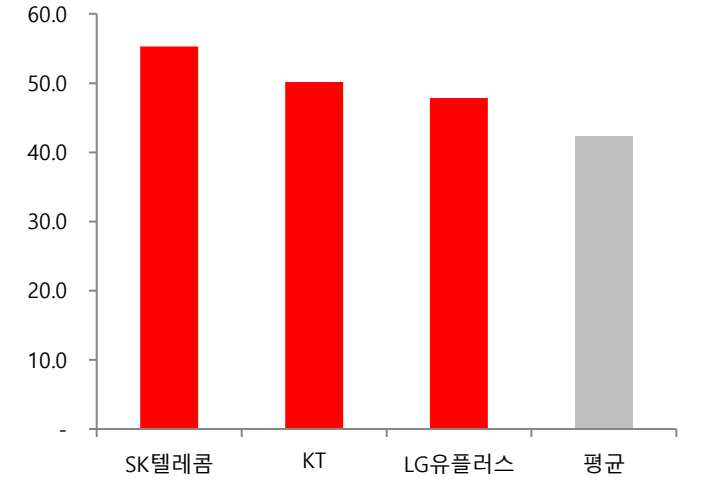
- LG유플러스는 지난 6월 24일 ESG 위원회 회의를 통해 2050년까지 사용전력의 100%를 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는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수립. 2030년까지 약 53%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는 중간 목표를 제시했으며, 2050년까지 온실가스 예상배출량을 25%를 자체 감축하고 나머지 75%는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예정
- SK텔레콤은 국내 통신사 중 처음으로 2020년 11월 RE100에 가입하며, 2030년까지 25%의 전력을 감축하고, 싱글랜(3G, LTE 장비 통합운영) 기술 적용, 태양광 발전설비 확대, AI반도체 사피온 적용 등을 통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할 계획
- KT도 2022년 6월 RE100 가입을 최종 승인 받았으며, 온실가스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, 자연공조 냉반시스테 도입 등 통신장비 에너지효율화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대체 40% 목표를 제시했으며,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제시
- 데이터 센터 등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이 큰 통신업계의 탄소중립 선언은 타 산업으로의 탄소중립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

국내 통신사의 환경부문 점수



자료: 지속가능발전소
주: 평균은 828개 주요 상장사 단순평균 점수

국내 통신사 ESG 종합점수



자료:지속가능발전소

SK 증권

Compliance Notice

- 작성자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-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
- 당사는 본 보고서의 발간시점에 해당종목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종목별 투자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투자판단 3단계(6개월 기준) 15%이상→ 매수 / 15%~15%→ 중립 / -15%미만→ 매도